

여수시, ‘제4회 가족도전! 골든벨’ 성료

70가정 250여 명 참여… 소통과 협력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여수시가족+센터가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 강화를 위한 ‘2026년 제4회 여수시 가족도전! 골든벨’을 지난 5일 여수디오션호텔에서 개최해 가족 70가정,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구성원 간 이해와 존중을 높이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가족 포토존 운영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축하 공연과 가족 레크리에이션, 즉석 게임 등 가족 화합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가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가족 도전! 골든벨’에서는 역사, 여수시 지역문화, 가족+센터 운영, 사자성어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출제됐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우승(왕이 될 상)은 주OO(축립초 6학년) 가족이 차지했다. 수

상자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됐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가족은 지역 사회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이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가족도전! 골든벨이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 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미자 여수시가족+센터장은 “이번 골든벨 행사가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간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수시의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수시가족+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 간 협력과 배려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참가 가족들은 문제를 함께 풀고

응원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했다.특히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어린이부터 부모, 조부모까지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장 곳곳에는 가족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 공간과 포토존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가족들은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건강한 가족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골든벨 문제는 가족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돼 참여 만족도를 높였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가족이 함께 웃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으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유빈 기자



여수시청 전경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다시, 비움’ 생태체험 프로그램 인기

순천시가 현대인의 지친 일상을 보듬기 위해 기획한 체류형 힐링 프로그램 ‘다시, 비움’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일과 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의 천년 숲과 고즈넉한 사찰 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여정은 2회에 걸쳐 45명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1박 2일간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를 통한 사찰 숙박 ▲요가와 명상을 활용한 신체 긴장 완화 ▲사찰음식 공양 ▲마음 나누기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특히 『스님, 고민이 있어요』의 저자인 선암사 등명스님과 함께한 ‘차담(茶談)’ 시간은 이번 프로그램의 백미였다. 참가자들은 평소 말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광양불고기·매실차로 삼복더위 극복

광양시가 초복(7월 15일)을 일주일 앞두고 여름철 기력 보충에 좋은 광양의 대표 먹거리를 소개하며 미식 관광 홍보에 나섰다.

예로부터 삼복에는 뜨거운 음식으로 기운을 보충하는 ‘이열치열’의 음식 문화가 이어져 왔다. 광양에는 참숯에 구워 먹는 광양불고기와 광양닭숯불구이, 광양기정떡, 광양매실차 등 여름철 즐기기에 좋은 먹거리가 있다.

광양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인 광양불고기는 얇게 저민 쇠고기를 양념해 참숯 위에 구워 먹는 음식이다. 광양읍 서천면 일원에 조성된 광양불고기특화거리에는 불고기 전문점이 모여 있어 광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는 먹거리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광양닭숯불구이는 참숯에 구워낸 닭고기의 담백한 맛과 향황, 쫄깃한

식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단백질이 풍부해 여름철 기력 보충에 좋아 가족 단위 관광객과 미식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광양의 전통 먹거리인 광양기정떡은 엄선한 국산 쌀을 막걸리로 자연 발효해 만든 떡이다.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여행길 간식이나 선물용으로도 많이 찾는다.

광양의 대표 특산물인 매실은 구연산과 유기산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의보감에도 등장한다. 매실을 활용한 매실차와 매실음료는 여름철 갈증 해소와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입맛을 돋우는 음료로도 즐겨 마신다. /이유빈 기자

시민들이 기록한 제주·양양 바다의 작은 생명…곡성에서 만나는 ‘갯민숭달팽이’ 사진전

제주와 양양 바다 속 작은 생명체를 시민들이 직접 기록한 수중사진전이 내륙 도시 곡성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해양시민과학조사단 산하 ‘달팽이반’ 조사원 14명이 참여한 「제주·양양 갯민숭달팽이 수중사진전」이 7월 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갤러리카페 푸른나타와 문화소곡성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시민과학 다이버들이 제주와 양양 연안에서 직접 관찰하고 촬영한 갯민숭달팽이의 다양한 모습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사진전이다.

갯민숭달팽이는 겉질이 없는 해양 연체동물로, 손톱보다 작은 크기도 화려한 색채와 독특한 형태를 지녀 ‘바다의 보석’이라 불린다.

그러나 크기가 매우 작고 서식 환경이 제한적이어서 일반인은 물론

다이버들도 쉽게 만나기 어려운 생물이다. 관람객들은 확대된 수중사진을 통해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바다 속 미시세계를 가까이에서 만나고, 작은 생명체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 해양 생태계를 주제로 한 전시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한다.

전시에 참여한 달팽이반은 2025년부터 제주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수중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매달 다이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갯민숭달팽이를 관찰·촬영하고, 사진과 생태 정보를 꾸준히 축적하며 해양 생물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말규 기자

전남도시가스(주), 구례군 노인요양시설에 1천만 원 상당 물품 기탁

전남도시가스㈜(대표이사 구자성)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3개소에 냉난방기 7대와 생필품 등 총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탁된 물품은 관내 노인요양시설 3개소에 전달되어 어르신들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도시가스㈜는 평소에도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지원 역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자성 전남도시가스㈜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남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필요한 시설에 소중히 전달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취약계층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심선섭기자

